

彼我 구분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

동서남북



유석재
문화부 차장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뉴질랜드는 1893년에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됐는데, 한국은 1948년이 돼서야 여자에게 투표권을 줬다.' 너무 늦었다는 의미였다. "그전까지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남성 역시 보통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답답해하는 반응이 많았다. 역사적 맥락을 모른 채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일을 평가하려 할 때 나타나기 쉬운 오류의 사례로 봐야 할 것이다.

자체가 지도상에서 사라졌거나, 살아 남았더라도 전체주의 제국의 속국 정도로 전락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과거사 해석은 '1950년 9월 더글러스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는 민족의 염원대로 통일됐을 것'이라는 국내 일각의 주장과 통하는 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뉴질랜드보다 훨씬 늦은 한국의 여성 참정권'이란 식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단순하게 과거사를 해석한다면 얼핏 그럴듯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때 맥아더가 아니었다더라면 '남북 통일'은 불과 몇 개월 안에 실현됐을 것

1948년 '통일정부 수립 운동'은 대한민국 탄생 막으려던 구호 아직도 그 미사여구에 속은 체 체제 전복 선동에 넘어가다니

이다. 하지만 그것은 과연 어떤 통일이었을까. 북한군은 부산까지 침공해 한반도 전역을 점령했을 테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 국공군사령부의 비밀 작전 계획처럼 사이판이나 파푸아뉴기니 같은 해외로 망명했을 공산이 크다.

역사의 맥락을 가진 채 미사여구(美辭麗句)로 분식하고, 거기에 불순한 의도까지 더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의 화살촉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속아 넘어가게 된다. 한 예로, 1948년 제주 4·3 사건이 '통일정부 수립 운

동'이었다는 것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지도자 자연스러운 듯 쓰는 말이 됐다.

그 말은 4월 3일 제주에서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의 슬로건이었고, 진짜 의도는 5·10 총선거를 무산시켜 대한민국의 탄생을 막는 것이었다. 무고한 제주도민에 대해 군경이 탄압과 학살을 자행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지만, 폭동의 주체 세력이 말할하려 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윤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정부 운동 운운한다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피아(彼我) 구분에 혼란이 일어나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0년 전 지방 도시에서 광복절 행사 때 시립 청소년 합창단이 체 게바라 티셔츠를 입고 나와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체 게바라가 쿠바의 공산 혁명을 세계로 '수출'한 인물이자 1960년 쿠바 정부 대표로 방북해 김일성을 만난 친북 인사였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한 채 그저 혁명과 저항의 아이콘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그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국가 기간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사람을 '양심수'로 미화해 사면을 요구하고, 급기야 한국사 교과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했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미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역사를 남이 떠먹여 주는 대로만 공부한다면 선전과 선동이 잘 먹히는 우중(愚衆)이 되기 쉽다.

김준의 맛과 섬 [135]

인천 소래포구 주꾸미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소래포구 어린 들은 분주해진다. 알이 꽉 찬 주꾸미를 찾는 사람들이 어시장으로 모이들기 때문이다. 주꾸미는 절기에 때를 맞춰 먹어야 하는 음식이 되었다. 여수나 고흥에서는 3월이면 찾지 시작해, 서천 마랑을 거쳐 4월 중순이 넘어가면 인천 주꾸미가 가장 맛이 좋을 때다. 소래포구의 주꾸미는 활주꾸미, 죽은 주꾸미, 냉동주꾸미 등이 있다. 활주꾸미도 국내산과 중국산이 표기되어 판매되고, 냉동주꾸미는 태국산이나 베트남산이 많다.

어가 있어도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녀석은 주꾸미다. 막 건져온 먹물을 뒤집어 쓴 주꾸미가 인기다. 매장 안에는 중국산과 국산 등 생산지를 적어두고 판매하는 곳도 있다. 허영계 죽은 주꾸미를 모아두고 싼값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 녀석들은 냉동주꾸미일 확률이 크다. 볶음용이나 라면을 끓일 때 넣을 것이라면 냉동주꾸미도 나쁘지 않다. 다만 화는 물론 숙회로 먹을 것이라면 활주꾸미를 구하는 것이 좋다.

인천에서 활주꾸미를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소래포구 외에 연안부두, 북서포구, 화수부두가 있다. 연안부두나 소래포구는 안강망으로 주꾸미를 잡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는 때에 맞춰 나가면 싱싱한 주꾸미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피뽕고동 껍데기를 엮은 '소라방'



으로 잡은 주꾸미를 원한다면 발품을 팔아 시흥 월곶포구로 가면 좋다.

인천 만석동에는 화수부두, 만석부두와 이어진 주꾸미거리가 있다. 쌀과 소금을 나르던 부두 노동자와 3교대로 일했던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 소금 농사를 짓던 염부들도 열린 주꾸미와 한 잔 소주로 고된 일을 버텼을 것이다. 이제 공장은 빈껍데기만 남아 물류창고로 전락하고 노동자의 거리라는 이름만 남았다. 부두 노동자도, 여성 노동자도 찾기 힘들지만 대신에 주꾸미를 찾는 식객들 발길은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社 說

“엄마 2만원만...” 피눈물 전세사기 피해자들, 나라는 어디에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자 정부가 뒤늦게 경매 중지 등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들은 인천 일대에서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남씨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남씨 일당은 금융권에서 빚을 내 빌라·아파트 2700여 채를 매입한 뒤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집값을 부풀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전셋집을 비싸게 임대하는 수법으로 125억원을 챙겼다.

집값 급락 여파로 남씨가 빚을 갚지 못하면서 현재 690여 채가 경매에 넘어가 있다. 경매로 집이 팔려 금융회사 선순위 채권을 갚으면 남은 돈이 거의 없어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챙기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 집에서 쫓겨난다. 지난 17일 세상을 등진 30대 피해자의 경우 거주 아파트 한 동 전체 60채가 전세 사기에 걸려 경매에 넘어갔고, 이 중 20채는 이미 낙찰돼 세입자들이 쫓겨났다. 이 피해자는 숨지기 전 어머니에게 2만원만 보내 달라고 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경매에 넘어갈 피해 주택도 2000채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비극이 또 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매 때 입찰인 최우선 변제액 상향, 전세 대출, 긴급 거처 지원 등의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근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었다. 피해자들은 일단 경매를 중지한 뒤 경매할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경매 자금 대출도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피해자 본인이 집을 낙찰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채권자의 합법적 근저당권 행사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단 비극에 놀란 정부가 뒤늦게 경매 중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작 나왔어야 할 대응이다. 나아가 정부, 지자체, 피해자 협회체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의 구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세 사기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가 공모해 집값을 부풀려 전세 사기를 용이하게 만드는 이른바 '업(UP) 감쟁'을 막을 대책,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보증 기관의 보증 능력 확대 등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던 사람들이 아니다. 가족과 살 집 한 칸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다.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고, 이를 사회가 미리 막거나 구제하지 못한다면 나라와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文 “5년 성취 무너졌다” 무슨 ‘성취’ 있었다는 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달 개봉할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런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퇴임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본인 영화를 찍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제 자랑까지 하는 것은 겸손 자중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5년간의 성취’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 그렇게 성취가 크다면 왜 5년 만에 정권을 잃었겠나. 문 정부 5년은 국고 탕진과 천문학적 국가 부채 증가, 이무 해아릴 수도 없는 위선과 내로남불, 불공정과 무능으로 점철됐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수백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좋은 일자리는 급감하고 노인·알바 자리만 늘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빈부 격차는 커졌다. 세금 퍼붓기로 국가 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수십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되레 집값이 폭등했다.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최근 서민들이 목숨을 끊는 전세 사기 사건은 이때 싹이 튼 것이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은 몰락 위기를 맞았다. 멸종한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공문서를 파기했다. 4대강 보

를 개방해 가뭄에 불 부족 사태를 가중시켰다. 대통령 체면 세운다고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미국에 보증까지 서며 정상 회담 이벤트에 매달렸다. 하지만 북한은 핵 어찌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북한 눈치만 봤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더니 곧바로 법을 만들었다. 간첩 수사도 중단해 전국에 간첩이 활개 쳤다.

조국 일가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비호만 했다.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부처·경찰이 총동원됐다. 이 상직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뒤 국회의원이 됐다. 이 모든 일이 국민들을 살기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 그런데 무슨 성취를 이뤘다는 것인가.

문 전 대통령은 “‘이히고 싶다’고 했는데 나를 현실 정치에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잊힐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언행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퇴임 후 이렇게 열심히 자기 정치를 한 전임 대통령은 없었다. 그에게 5년간의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는 것은 소용없는 요청일 것이다.

‘혈세 평평’ 합의하자마자 유럽 여행 간 의원들

국가재정법, 재정 준칙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여야 의원들이 18일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났다. 아이없는 것은 이들이 유럽 중앙은행 총재 등을 만나 세금 합부로 쓰는 것을 막는 재정 준칙 시행 상황을 시찰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야는 자신들 지역구에서 벌일 국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없애기로 합의했다. 세금을 합부로 쓰겠다고 의기투합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빚을 합부로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재정 준칙 도입은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 합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살피겠다고 유럽 여행을 갔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시찰은 국제적 식견을 넓힌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언제나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처럼 싸우다가 국민 세금 마음대로 평평 쓰는 데만큼은 쉽게 합의하고, 그 일이 끝

나자마자 함께 유럽 여행을 가는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일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역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면제해주기로 한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여당은 이 법안의 최종 처리를 일단 연기하고,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재정 준칙’ 폐지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야당은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법은 주로 운동권이나 장악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최대 연 7조원가량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운동권 퍼주기법’으로도 불린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소속의 국회 기재위원장과 간사가 국회의 비우고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의원성 장기 시찰에 나선 것은 무책임하다. 1분에 1억 이상의 나랏빚이 증가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이번 출장은 취소해야 했다.

"부패진보 단죄 브라질 보라... '돈봉투' 수사 한국검찰 응원한다"

"한국의 '세르지오 모루'들은 분발하라!
"의미 있는 소수(significant minority)가 함께 할 것"

진보'라 쓰고 '부패 위선'이라고 읽는다

2014년 브라질에선 '세차장(car wash) 사건'이란 그 나라 역사 최대의 스캔들이 일어났다. '진보' 정권의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였다.

그들은 계약 상대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그 대신 업체들은 수익금 일부를 '저수지'에 넣었다. 비자금이었다.

이 돈으로 그들은 정치인 등 유력자들에게 현금, 물렉스 시계, 선거자금, 고급승용차, 미술품, 헬리콥터, 요트를 뇌물로 줬다.

이 사건을 해치운 국민적 영웅은 일선 수사관 뉴턴 이사이, 그리고 수사 지휘 판사 세르지오 모루였다. 분노하고 열광한 국민은 외쳤다.

"모루를 대통령으로!"

브라질의 세르지오 모루... 한국의 한동훈과 이원석

요즘 한국에서도 한동훈·이원석 검찰이 '진보' 판(版) '세차장 스캔들'을 전격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전주(錢主) 오피들, 더불어 여성 사무부총장, 민주당 금배지들이 모두 엮였다. 송영길이 알고 있었다는 녹취도 나왔다. 그는 이재명에게 올인 했었고 (친문) 흥(興)이 돈 뿌리니... 라는 강래구의 발언도 잡혔다.

그렇다면, 더불어부패당의 거당적 범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브라질은 반부패법 10개 항을 제정했었다.

송영길-이재명 관계 파헤쳐라

그러나 오늘의 한국에선 그걸 기대할 수 없다. 원내 다수당이 사건 당사자인 까닭이다. '세차장' 때의 브라질 국민 같은 투쟁도 기대할 수 없다. 대선 때 유권자의 반이 그쪽을 찍었으니.

그러나 나머지 반은 외쳐야 한다.

한국의 '세르지오 모루'들은 분발하라!
'진보의 민낯'을 드러내라!
송영길-이재명 관계를 들춰내라!

그대들은 외롭지 않다. 의미 있는 소수(significant minority)라도 깨어 있는 한.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교수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4월 15일 게재 되었습니다.

